2017년 과정평가형자격 자격취득자 우수사례

○ 훈련기관 :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
○ 훈련과정명(자격직종명) : 컴퓨터응용기계설계(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훈련기간 : 2016년 1월 11일 ~ 2016년 6월 30일
○ 훈련생명 : 소병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하여 정들었던 일터, 보금자리를 뒤로 하고 두 돌이 갓 지난 아이와 단 둘이 고향인 포항으로 돌아 온지 6개월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힘들었던 일을 겪고 목표도 없이 방황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젠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 하고 고민하던 중 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던 어머니께서 어느날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 직업훈련을 받아보며 결정해보면 좋지 않겠냐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우선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직업훈련기관을 탐색하고 교육훈련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CAD활용기술과 기계설계 분야로 호기심이 생겨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의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찾게 되었는데,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과정이라는 안내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이 수업만 안 빠지고 출석을 잘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과정인줄로만 알고 쉽게 생각하였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직무의 교육에 자신감이 없다보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입학 상담을 위해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제가 담당선생님에게 가장 처음 물었던 말입니다.

또 스스로에게도 계속 되물어도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저에게 직업학교의 선생님은 웃으며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병일씨께서 하실 수 있으시려면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며 저보다 나이가 많고 환경이 어려운 분들의 취업 성공사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

해보면 그때 큰 힘을 얻은 거 같았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걸고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교육이 시작되고 과정평가형 자격은 무엇이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왜 필요한지, NCS모듈형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등등...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용어들이 참 많았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에서도 처음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수회에 걸친 내부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여야 하고 출석률도 좋아야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도 응시하여 필기형 과제, 실습형 과제를 몇일간 응시하여야하고 면접시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비해 어려워 보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면 될 수록 교육이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감을 잠재워 줄만큼 열정적인 담당 선생님의 열의와 의지를 볼 수 있었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었으며, 산업현장에 딱 맞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에 첫 도전한다는 기대감과 결코 쉬워 보이지 않다는 점이 저의 도전의식을 자극하였습니다.

2016년 초 한겨울 수업을 시작하였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였지만,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올 때 쯤에는 수업과정과 연계된 다른 기술자격증 준비를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실기검정의 도구이자 기계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AutoCAD, 3D인벤터의 민간자격증을 차례로 취득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의 상급자격이라 볼 수 있는 기계설계산업기사에 도전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계설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은 제가 처음으로 취득한 국가자격증인데 과정평가형 자격취득과 기존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동시에 준비하다보니 과정평가형 자격취득과정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증은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고 오답노트도 정리하며, 도면작성을 반복 연습하는 정도로도 어느 정도 합격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실제 설계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공부에만 그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진이 집필한 NCS모듈형 교재로 진행되었으며, 그 어떤 자격증을 위한 교재보다 충실한 내용과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되어져 있고 직무능력에 따라 세분화 되어있다는 것을 정규수업과 매일 이루어지는 보충수업을 받아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혹 '이런 것까지 배워야하나'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의문은 취업한 이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과목 수업이 끝나고 취업한 후 다시 보지 않을 줄 알았던 NCS모듈 교재는 사무실 책꽂이에 꽂아두고 가끔씩 펼쳐보게 될 정도로 내용이 알차고, 실제 응용이 가능할 정도로 실속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짧았던 5개월여 간의 모든 교육훈련 과정과 내부·외부평가가 모두 마무리 되고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과정 수강이 쉽지 않았던 만큼, 자격증에 빽빽하게 적힌 교육이수 내역은 그냥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처음 교육과정을 시작할 때 두 장의 이력서를 작성하였는데 하나는 작성 당시 기준의 '자격증란이 빈칸인 이력서'였고, 또 다른 하나는 과정을 마무리 할 때의 희망하는 목표를 가득 채워 넣은 이력서를 작성한 것이었는데 목표로 했던 자격증은 모두 취득하여서 두 번째 이력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료 후 고민해야했던 것은 이 과정평가형 자격증으로 어떻게 저를 어필할 수 있을까였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사항을 자기소개서 상에 큼지막하게 표현하기로 하고 '저는 비록 이 직무에 경력은 없으나, 현장에서 필요한 도면해독, 2D도면작성, 3D모델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타이틀로 이수내역을 빼곡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는 학교에서 추천하여 준 몇 개의 기업과 면접을 진행하였고 강교제작 및 철골구조물 등을 제작하는 아영중공업(주)에 최종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여 직무에 적응하는 동안 과정평가형 자격을 준비하며 공부하였던 내용과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수준이었기에 빠르게 업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실력을 인정받아 주임 직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업무에 익숙해져가던 중 저에게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관련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하나의 직함을 더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 현장교사'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포항 흥해공업고등학교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인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을 인정받아 기업현장교사로 발탁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학습병행제의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는데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이 시작되면서 의문은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제가 배워왔던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과정과 커다란 맥락이 일치하는 제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과정에 따라 양성하고 재교육, 연수 등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훌륭한 취지와 더불어 국가직무능력에 따른 모듈교재를 활용하는 점은 아주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먼 타지에서 동향의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분과 비슷할까. 그만큼 다른 기업현장교사에 비해 사명감과 의지가 더욱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현장교사 심화과정을 빨리 이수하고 싶은 목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제와 뒤늦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와 저를 교육해주신 담당 김인호 선생님께서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과정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든 점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교육과정에 걸쳐 올바른 방향으로 저를 잘 이끌어 주신 점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발걸음을 떼다라는 표현의 관용어를 많이 쓰는데 나의 두 번째 시작을 발걸음이 아닌 도약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에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과정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2017년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일학습병행제의 첫 번째 OJT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리다면 어린 3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하였는데 아직은 첫 사회생활의 호기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해 줄 것입니다.

"모두 잘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시작하면 돼"